분과회 등 보고

◆분과회 보고

가시하라시「마을만들기 분과회」

히우라 야스오 가시하라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부 이마이초 마을풍경 보존정비사무소 소장

7월 28일에 가시하라시에서‘마을 만들기(조성), 지역 만들기(조성)’를 테마로 고토 겐이치 님을 강사로 모시고, 4현 8시정촌이 참가하여 분과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가시하라시 이마이초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있어 빈집 활용에 따른 활동사례 발표와 현지 시찰을 실시한 후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의견교환회를 실시하였다.

빈집의 활용사례로서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시설과 의대 게스트 하우스 등의 정비, MBT(Medicine Based Town) 구상 (의학을 기초로 한 마을 만들기)에 기초하여 빈집을‘마을 의료거점’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가시하라시의 발표가 있었다.

의견교환회에서는 가시하라시의 사례발표 등을 근거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위한 자금확보, 지구단체나 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 마을 만들기 전반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우선 자금확보에 대하여. 참가자로부터 주민참가형 마을 만들기 펀드의 활용사례가 소개되어 전국 최초의 활동은 홍보성이 높아 국가 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에 대해 강사는 전국 최초의 활동은 비교할 만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

다음으로 지구단체와 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대하여 참가자로부터 행정과 자치체의 파이프 역을 담당하는 직원을 각 지구에 배치하고 있는 사례 등이 소개되어 강사로부터 일상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고 대화, 교류를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원활한 마을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전반의 각 문제에 대하여 참가자로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외에 각 지역의 규제 등에 의해 빈집 대응책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과 관광객의 체재기간이 짧아 관광소비액이 저조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강사는 빈집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고 국가 및 현과의 연계를 도모할 것, 그리고 각 지역의 매력을 얼마나 연마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얻었다.

마지막에 강사로부터 지역의 자원을 살린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려면 먼저 주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며 주민의 도전 의식과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체계 만들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21세기 지역활성화의 키워드인 글로벌 밸류(세계적 가치)와 글로벌 엣지(세계적 강점)를 의식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사례의 발표와 의견교환을 통해 지역마다 안고 있는 과제와 해결방법은 다르지만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사람과 사람’,‘마을과 마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공통적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개최보고

- **일 시** 2016년7월28일 (목) 10:00~16:30
- **주 최** 가시하라시 (공동 주최 나라현)
- **장 소** 가시하라시 (이마이 마치나미교류센터 “하나이라카”)
- **참가자** 시즈오카현、미에현、와카야마현、나라현、나라시、덴리시、가시하라시、고세시、이카루가초、아스카무라、고료초、시모이치초

필드워크 모습

의견교환 모습

산시성「관광 분과회」

쓰지모토 히로시 나라현 지역진흥부 관광국 국장

10월 18~20일에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서 '상호 협력하에 동아시아 관광의 번영을 공유한다' 를 주요 테마로 분과회가 개최되어 5개국으로부터 14의 지방정부등이 참가하였다. 분과회가 일본 국외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조강연에서는 다이빈 중국여유연구원장이 '동아시아 관광공동체의 국가적 비전과 지방의 역할', 전용찬 한국여유발전국 시안 주석대표가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 양충우 중국 산시성 여유국장으로부터는 '동아시아 관광연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 후에 각 지방정부의 대표들로부터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관광 찬스와 공유', '지방관광에 있어서의 각 분야의 연계' 에 대하여 발표가 있어 그것을 감안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분과회 마지막에 산시성이 '시안 컨센서스' 로서 정리한 '동아시아 지방정부관광연계에 관한 제안' 이 있어 관광은 상호연계, 지역발전 및 농촌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아시아의 지방정부는 인식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상호 연계를 촉진시켜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 발전에 노력해 가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개최보고

- **개 최 일** 2016년10월18일(화)~20일(목)
- **주 최** 중국 산시성(陝西省)
- **장 소** 윈덤 그랜드 시안 사우스 호텔 (중국 산시성 시안시(陝西省 西安市))
- **테 마** 상호 협력하여 동아시아 관광의 번영을 공유한다.
  ①동아시아 관광의 기회 공유
  ②지방관광의 각 분야 연계에 대하여
- **참 가 자**
  (중 국) 국가여유(旅遊)국, 중국 여유(旅遊)연구원, 산시성, 베이징시, 내몽골 자치구, 산둥성, 시안시, 뤄양시, 둔황시
  (일 본) 가가와현, 나라현
  (한 국) 한국관광발전국 시안 지국
  (말레이시아) 국가 관광국
  (태 국) 태국 중국 여유동업상회

◆관련 포럼 보고

시즈오카현「동아시아『식(食)과 농(農)』지역 포럼」

호소야 가쓰히코 시즈오카현 경제산업부 농업국 농업전략과 과장

작년에 한국 충청남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의 취지를 계승하여 10월 28~30일에 시즈오카현에서 '동아시아 "식(食)과 농(農)" 지역 포럼'을 개최하여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수많은 회원들이 출석하였다.

일본, 한국, 중국은 옛부터 몬순기후에 뿌리내린 이모작이 발달해 있어 공통점이 많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농촌인구의 감소와 식(食)의 글로벌화 등 공통과제도 안고 있다. 그래서 식(食)과 농(農)을 둘러싼 현대적 과제로서 '식농(食農)연계와 건강장수' '도시와 농촌의 교류'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3가지 테마를 들었다. 나고야대학 대학원의 쇼겐지 신이치 교수에 의한 기조강연과 가와카쓰 시즈오카현 지사,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차이 웬지에 저장성 농업장에 의한 패널 디스커션 후 각국의 지방정부와 농업 관계자로부터 11건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예를 들면 농경문화의 발상지로서 7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구 700만명의 대도시인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6차 산업화가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농업정책의 하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식품기업과 농업종사자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연계함으로써 재배관리와 안전, 안심의 확보에 노력하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농촌주민의 소득배증, 관광농업의 육성,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등 닝보시의 6차 산업화 목표는 일본 지방정부의 정책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기타 식농연계와 건강장수,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관한 사례 발표 모두 한중일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정보 공유가 3개국의 농업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재인식하였다.

개최보고

●개 최 일	2016년 10월 28일(금)~30일(일)
●회 장	시즈오카현 컨벤션 아트센터 '그랑십' 외
●주 최 자	시즈오카현 지사
●참 가 자	일본 : 시즈오카현, 나라현, 야마나시현, 가가와현, 구마모토현, 군마현, 시즈오카현 선출 국회의원, 농업단체, 농업종사자 등 한국 : 충청남도,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농업단체, 농업종사자 등 중국 : 저장성, 원저우시, 항저우시, 닝보시
●대응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테 마	①식・농연계와 건강장수 ②도시와 농촌의 교류 ③농업의 6차산업화

총 회

의장 보고

아라이 쇼고 나라현지사

○제 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최에 대하여

본 회합도 7회를 맞이하여 농업과 관광을 테마로 한 분과회 등은 나라현 이외의 지역에서도 개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발표가 있다.

다음 제 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전체회합이 2017년 5월 10~11일의 일정으로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수장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분들의 참가를 기대하는 바이다.

차기 개최 지방정부 프레젠테이션

GAO, Jianjun 청두시정부 부비서장

이곳 아름다운 나라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청두시를 대표하여 회합의 원만한 개최를 경하드린다.

청두시는 2015년에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가입한 이래 상호 교류와 이해를 돈독히 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협력해 가고자 한다. 아라이 의장님께서 선언하셨듯이 다음 제 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2017년 5월 10~11일에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린다.

여기서 잠깐 청두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한다. 청두시는 쓰촨성의 성도 소재지로서 인구 수 1600만명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2300년 이상 도시의 명칭이 바뀌지 않았다. 만물이 풍요로운 '천부지국'의 땅으로 불리는 판다의 고향이기도 하며 세계자연문화유산인 '두장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UN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추천 관광지, 미식도시로도 선정되었다. 개방적인 국제도시이기도 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2016년 7월 현재 솽류 국제공항에서는 이미 91개 국제노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세계 76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72시간 이내라면 비자가 불필요하다는 시책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신공항이 건설중에 있어 2020년에는 개항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2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는 도시가 된다.

또한, 한국,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16개국이 청두시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71개 도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다. 2000년 이후 청두시는 세계역사도시연맹, 과학기술연맹, 세계와 지방정부의 연합조직 등 수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500개의 글로벌 기업 중 278사가 청두시에 거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두시는 혁신 도시이기도 하여 46개 국가 수준의 대학,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바이오, IT, 석유화학공업 등의 기지이기도 하다. 2015년 청두의 GDP는 10, 800억 인민위안으로 7.9%의 성장을 이루었고 2016년 9월 현재 7.0%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 내륙에서 가장 투자에 적합한 도시로 선정하였고 Forbes지는 급성장하는 탑 10 도시로 그리고 Fortune지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베스트 도시로 평가하고 있다.

청두시는 현재 아시아, 유럽을 대상으로 도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추적인 도시, 혁신도시를 겨냥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5월에는 청두시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표기자 회견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6개국 40개 지방정부가 참가해 주셨다.

이번에는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농업과 지역경제의 발전' '저출산대책의 추진' 이라는 3가지 테마에 대하여 고토 겐이치 님, 모타니 고스케 님, 마쓰다 시게키 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각 테마를 놓고 토론을 펼친 결실있는 회합이 되었다. 또한, 도쿄대학 명예교수이신 기타오카 신이치 님께서 기조강연을 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 제 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을 2017년 5월 10일~11일에 처음으로 나라현이 아닌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린다. 청두시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서 그런 도시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 개최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청두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번 회합도 매우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공통과제를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될 시책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회합이 더욱 발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협동 및 연계사업을 모색해 갈 것이다.

올해도 멀리 나라현까지 찾아와 주시어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가지방정부 대표단장 코멘트

중국 • 청두시 ····· GAO, Jianjun 청두시정부 부비서장

나라현에서 회합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각국 여러분들과 과제 해결을 위한 알찬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청두시는 급속한 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청두시보다 앞서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한편으로는 이미 환경문제를 극복해 온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본다. 이번 회합에서는 특히 도시 만들기 요령, 지혜, 다양한 방법을 들을 수 있었다.

나라현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다. 앞으로 청두시와 나라현과의 우호 협력관계도 더욱 확대시켜 가고 싶다.

다음 제 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을 청두시에서 주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라현과 마찬가지로 이 회합을 성공시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싶다. 청두에서의 회합에도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 Ahmad Heryawan 지사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동아시아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인재가 풍부하며 훌륭한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서자바주가 추진하고 있는 지오파크 정비를 중심으로 한 관광진흥과 하천 정화 사업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빌어 추진해 갈 것이다.

이러한 회합의 의의는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 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지구의 일원으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감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평화롭게 공존 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 Mohd Nasir Sheikh Salim

말라카 역사도시위원회 자치체 담당장관

말라카주를 대표하여 나라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회합은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지식과 의견을 돈독히 하였고 공통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말라카주에는 많은 역사유산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 민족적 가치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말라카강의 개발 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도 추진해 가고자 한다. 다음 청두시에서의 제 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도 성공리에 치뤄지기를 기대한다.

참가지방정부 대표단장 코멘트

한국 • 충청남도 윤종인 행정부지사

훌륭한 회합을 개최해 주신 나라현의 지사님께 감사드린다. 일본의 발상지인 나라지방은 고대 문명의 교류거점이자 집결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정부가 모이는 회합이 나라현에서 개최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1300년 전 고대문명의 교류와 같이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이 회합은 다양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마을 만들기, 농업,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척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관계를 초월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교류를 확대해 가는데 있어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뜻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긍지를 가지고 개성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지혜를 집약시켜 협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

베트남 • 투아티엔 후에성 NGUYEN Van Cao

성인민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2011년부터 참가하여 이번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합을 통해 주민참가와 의식향상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환경, 기후변동대책 등이 생활과 농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귀중한 성공사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젊은이들의 농촌과 지방에의 정착, 유출방지도 과제로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투아티엔 후에성은 관광도시로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여 관광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방정부와 연계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계해 나가고 싶다.

이번에는 각 지방정부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 회합이 가까운 장래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나라현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나라지방의 아름다움을 우리 후에성의 주민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일본 • 니가타시 시노다 아키라 시장

나라현 지사의 진력으로 본 회합이 7번째를 맞이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며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토론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농촌의 과소화가 심각한데 중국, 한국, 베트남도 이윽고 고령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농촌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직접 생산하는 농산품의 훌륭함을 인식하여 농산품, 식재료를 지역에서 소비하는(지산지소), 또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지역에서 만드는(지소지산)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훌륭한 식자재를 사람들에게 접목시키는 브랜드로서 관광, 교류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지역이 열심히 추진하는 6차 산업화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있어 중요하다.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지역 밖이나 해외에 판매하는(지산외소) 것도 포함하여 농촌, 농업의 활성화를 더불어 생각하여 추진해 가자는 중요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

각 강사 코멘트

고토 겐이치 (주) Prot Asia and Pacific대표이사 사장

이번에 모인 지방정부도 매우 다양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마을이 탄생한지 30여 년인 도시에서 천 년 이상 된 도시까지, 그리고 인구는 7,000명에서 7,000만명인 도시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였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공통과제를 이끌어 내어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테마로 논의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환경문제는 각 지역의 핵심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물, 강과 같은 단어가 많은 지방정부로부터 나왔다. 자연환경은 주민들의 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 그러한 관광의 추진도 역시 공통 테마로서 거론되었다.

또한, 마을 만들기를 할 때 주민의식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면에 있어서 행정의 관여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주체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도 공통의 과제였다.

다양한 과제를 초월하여 서로 연계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전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역의 성장 원동력에 일본의 경험을 가미함으로써 이상적인 지역을 동아시아 각지에 만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큰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각 지역도 거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상승효과가 이 회합을 통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전체 회합에는 이전에도 출석했지만 이번에 상황이 크게 진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체 회합이 2017년에 처음으로 나라현을 벗어나 중국 청두시에서 실시된다. 나라현이 오랫동안 의도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라현이 끈기있게 시책을 실시해 왔다는 것에 일본인 모두는 긍지를 느껴야 할 것이다.

기조강연에서 동아시아 국가간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역간에 손을 잡고, 그것으로써 다양하게 연계되어 간다는 점이 견해일치된다는 발언이 있었다. 토의에 참가했던 지방정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실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황은 달라도 공통의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논의를 나눌 수 있었다.

오늘은 대농업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같은 농업지역이 아닌 분도 계셨지만 놀라울 정도로 논의가 일치되었다.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가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업을 어떻게 활용할까, 즉 농업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남겨진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일본은 2차 대전 후 70년 들여 알게 되었다. 그것을 중국, 한국, 베트남 여러분들도 동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매우 참고가 되었다. 앞으로의 회합에 있어서도 더욱 발전된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

저출산은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아시아가 발전해 오면서 이러한 문제는 핵심 의제로 부각 되었다. 저출산은 각 지방 정부가 지속해 나가기 위한 근간과 관련된 문제임을 각 지방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논의 중에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배경에는 결혼과 보육, 일하는 방식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다양하고 까다롭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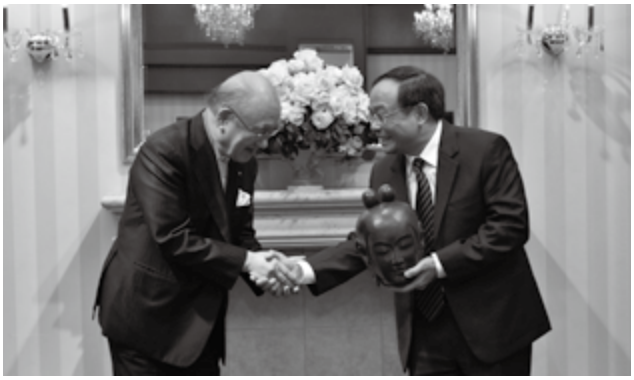
저출산 대책은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종합 전략이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도 저출산 대책에는 필요하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그 지역을 선택하고 타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성을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즉, 육아지원 플러스 지역의 개성을 겨루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인상적인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다. 먼저, 결혼하는 시기가 늦거나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젊은이의 증가가 저출산의 강력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인 면으로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가족이나 결혼생활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아시아의 문화이며 이러한 문화는 저출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아시아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웰컴 리셉션

第７回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The 7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기념 촬영

第７回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The 7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Host : Nara Prefecture Supporter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Ministry of Foreign Affairs,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교류회

第7回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The 7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익스커션

나라현산 후유가키(감)PR

포스터 전시

신문 기사
Media Coverage

The 7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2016年11月8日（火）　奈良新聞（朝刊1面）
Nov. 8, 2016 (Tue.) Nara Newspaper (Morning paper P.1)

地域発展へ活発討議

奈良で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県内事例も報告

共通する課題について相互理解を深め合う第7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県主催、総務・外務両省など後援）が7日、奈良市三条本町のホテル日航奈良で開かれ、開会式に続き、首長レベルの約20人による討議などを行った。今回は中国や韓国、インドネシアなど計6カ国40地方政府の代表が参加した。

開会式では、荒井正吾知事と地方自治研究機構の石原信雄会長があいさつ。荒井知事は「いろんな地方政府と交流を深め、地域発展のきっかけをつかんでもらいたい」と話った。

テーマごとに議論を交わした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7日、奈良市三条本町のホテル日航奈良

討議は「まちづくり、地域づくり」「農業と地域経済の発展」「少子化対策の推進」の3テーマで実施。

「農業と地域経済の発展」の討議には中国や韓国、ベトナムの地方政府の代表者のほか、県内の自治体からは奈良市や御所市、広陵町、明日香村の首長が参加。荒井正吾知事も同グループに加わって発言するなど、活発な論議の輪が広がった。

奈良市の仲川元庸市長は観光協会などと連携して食のブランド化を推進していることや、市内の学校給食に地元産品を使用していることなどを紹介した。一方、明日香村の森川裕一村長は宿泊型の農村体験の取り組みを報告した。

このほか、東京大学名誉教授の北岡伸一氏が「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会」と題して基調講演。北岡氏は「東アジアの地方都市同士で抱える問題は共通している。交流を深めて共通問題を解決してもらいたい」と参加者に呼び掛けた。

2016年11月8日（火）毎日新聞 奈良版（朝刊 24面）
Nov. 8, 2016 (Tue.) Mainichi Newspapers (Morining paper P.24)

奈良

東アジア自治体 行政課題を議論

市内で政府会合

東アジアの地方自治体が行政課題を話し合う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7日、奈良市であった。県主催で今年7回目。日中韓、フィリピン、マレーシア、インドネシアの6カ国40自治体が参加し、地域づくり▽農業と地域経済の発展▽少子化対策――の三つのテーマで議論した。

少子化対策の分科会では、日韓の自治体が若者が進学や就職で都市に流出する現状を報告。一方、静岡県は大学教育に特色を持たせるなどの取り組みを示し、天理市はインターネットなどを活用した在宅勤務で育児と仕事を両立している例を紹介した。

【和田明美】

紙面編集　北山久美子

2016年11月8日(火)　朝日新聞 奈良版（朝刊29面）
Nov. 8, 2016 (Tue.) The Asahi Shimbun (Morining paper P.29)

少子化対策など議論

奈良で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6カ国40自治体 首長ら

県主催の「第7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7日、奈良市で開かれた。日中韓など6カ国の40自治体のトップらが参加。まちづくりや地域経済の発展、少子化対策など共通の課題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それぞれの施策を学んだ。

県出身でJICA理事長の北岡伸一・東大名誉教授が「東アジアの未来を考える」をテーマに基調講演した。東アジアは「世界の成長センター」であり、衝突を避ければさらに発展していくと指摘。「都市の関係は重要。共通の課題に取り組み、プラスの関係を築く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

首長ら自治体代表は、三つのテーマに分かれて議論した。

「まちづくり、地域づくり」にはインドネシア・西ジャワ州や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などが参加。プロットアジアアンドパシフィック社長の後藤健市氏が「地域の個性を住民が認識し、個性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につなげることが重要」と指摘。6カ国13自治体の代表が、それぞれの取り組みや悩みなど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

「農業と地域経済の発展」には韓国・公州市やベトナム・フートー省などが参加した。薬谷浩介・日本総合研究所主席研究員は「農作物を加工し、ブランド化して販売することが注目されている」と6次産業の可能性を提案。代表らは農家が経営するレストランなどの事例を出し合った。

中国・西安市などが参加した「少子化対策の推進」では、中京大の松田茂樹教授がアジア諸国の少子化に共通する要因として未婚化や晩婚化を挙げた。自治体の結婚支援策にも議論が及び、若者が結婚しやすい環境づくりに力を入れている事例も紹介された。

次回は来年5月、中国・四川省の成都市で開く。奈良以外での開催は初めてとなる。終了後の記者会見で荒井正吾知事は「奈良は1300年前、東アジアのグローバル世界の恩恵を一番に受けたという感謝の気持ちから、会合を開いてきた。成都市で開かれることは大変うれしい」と述べた。

（討議の詳しい内容は後日の紙面で紹介します）

（荒ちひろ、市野塊）

記者会見に臨む各国の代表たち＝奈良市三条本町

■参加した地方政府一覧
【中国】安徽省、成都市、西安市、宿州市、東営市
【インドネシア】西ジャワ州、ジョクジャカルタ特別州
【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
【韓国】京畿道、忠清南道、公州市、瑞山市、慶尚北道
【ベトナム】フートー省、トゥアティエン・フエ省、フエ市
【日本】山形県、福島県、新潟県、福井県、山梨県、長野県、静岡県、三重県、京都府、和歌山県、島根県、徳島県、香川県、奈良県、宮城県多賀城市、新潟市、奈良市、天理市、橿原市、御所市、斑鳩町、明日香村、広陵町、下市町

2016年11月10日(木)読売新聞 奈良版(朝刊 29面)
Nov. 10, 2016 (Thu.) Yomiuri Shimbun (Morining paper P.29)

東アジア 連携呼びかけ

奈良で40地方トップ会議

県主催の国際会議「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7日、奈良市内のホテルで開かれ、中国や韓国、ベトナムなど6か国の40地方政府・自治体のトップらが参加。住民の高齢化など地域の課題を話し合った。

2010年から毎年開き、7回目の今年は「まちづくり、地域づくり」「農業と地域経済の発展」「少子化対策の推進」の三つのテーマで討論した。

開会式で荒井知事が「地域発展のきっかけにしてもらいたい」とあいさつ。基調講演した国際協力機構（JICA）の北岡伸一理事長は「東アジアではナショナリズムが激しくなっているが、国家間の衝突がないようにすれば更に発展する」と述べ、自治体レベルでの連携強化を呼びかけた。

2016年11月21日（月） 朝日新聞（朝刊27面）
Nov. 21, 2016 (Mon.) The Asahi Shimbun (Morning paper P.27)

発展への歩み 奈良から

日本、中国、韓国、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の6カ国40地方政府（自治体）の首長や代表が共通の課題を話し合う「第7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奈良県主催）が7日、奈良市のホテル日航奈良で開かれ、まちづくりや農業、少子化対策について活発な議論を交わした。

まちづくり・地域づくり

「足元にある個性」大切に

「まちづくり、地域づくり」には、中国・安徽省やベトナム・フエ市など6カ国の計15自治体が参加した。

進行役を務めた後藤健市・ブロットアジアアンドパシフィック社長は「地域の魅力とは個性であり、ほかとの違い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が重要」と指摘。歴史的な町並みや地元の産業など、「足元にある個性」を生かす大切さを強調した。

韓国・忠清南道のユン・ジョンイン副知事は、自転車道の整備や緑地化を採り入れた都市計画について説明。「環境を保全し、資源とすることが、観光振興や地域づくりの良いテーマになる」と語った。中国・東営市の韓偉・城郷企画局副局長は「私たちの都市は新しい。自然と融合したまちづくりを進め、渋滞や大気汚染など都会の問題の解決を図っている」と述べた。

東アジア各地の地方自治体の代表者が様々な課題を話し合った

後藤健市氏

韓偉氏

アーマッド・ヘリヤワン氏

参加者からはまちづくりの課題に少子高齢化を挙げる声があったほか、インドネシア・西ジャワ州のアーマッド・ヘリヤワン知事は、地域が直面している飲み水や川の汚染問題について助言を求めた。また、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のモド・ナセル・シェイフサリム歴史都市委員会自治体担当長官は「我々は多民族国家。異なる文化を持つ人々の中で、同じシナリオを描くことができるかが重要だ」と述べた。

一方、今年5月に伊勢志摩サミットが開かれた三重県の横田浩一・雇用経済部副部長は、地域の食文化を発信する取り組みを紹介しながら「一つの地域だけでなく、広域で進められるもの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提言した。

農業と地域経済

人口減、「6次産業」に未来

ブイ・パン・クワン氏

キム・サンテ氏

篠田昭氏

「農業と地域経済の発展」では、中国・宿州市や韓国・公州市など4カ国の計13自治体が地域の活性のため、農業を生かす方策などを議論した。

進行役は日本総合研究所の藻谷浩介主席研究員。東アジア共通の課題として「人口が減る中、いかに農業を守っていくか」と述べ、農家が生産から加工、販売まで一貫して手がける「6次産業」の可能性に言及した。そのうえでワインや漬物などの農産加工品をブランド化し、付加価値を高めたり、地産地消で利益を地域に還元したりしながら農家の収入を確保する仕組みを提案した。

ベトナム・フート省のブイ・パン・クワン省党委員会常任副書記長は「若者が都市に流出し、農業人口が高齢化している」と報告し、特産の茶やザボンを使い、省外でも販売できる加工食品の開発計画を明らかにした。また、韓国・公州市のキム・サンテ農村振興課長は「特産の栗を使ったマッコリや菓子はあるが、規模が小さく産業として根付いていない」と説明。「政府や自治体のレベルで支援し、産業化や国際化、大衆化を図りたい」と語った。

米どころ新潟市は、国の特区制度による規制緩和を活用。JR東日本やローソンなど大手企業が農業へ参入している。篠田昭市長は「ユニークな活動で6次産業に結びついている」と胸を張った。奈良県の荒井正吾知事は「農村をもっと豊かにできないか」と話し、「実際に食べないと魅力が分からない」ことから、地方同士が連携して開催する「食の祭典」を提案した。

少子化対策

未婚・晩婚 働き方提案も

段東利氏

松田茂樹氏

カン・ギョンア氏

「少子化対策の推進」には4カ国の計14自治体が参加。現状について報告し、地方自治体ならではの取り組みを模索した。

中国・西安市は、長年続いた国の「一人っ子政策」で少子化が進み、介護問題が深刻になっている。市衛生・計画生育委員会副主任の段東利氏は「第2子の出産制限が緩和された現在でも、子供は少ないほうが良いという文化が根強く残っている」と述べ、産後休暇の拡充などの対応策を説明した。

進行役の松田茂樹・中京大教授（家族社会学）は、各地の少子化問題に共通する原因の一つに「未婚・晩婚」を挙げた。子育てや教育にかかる費用の負担増などが背景にあるとも指摘し、「少子化は地方自治体の核心的な問題。総合的、長期的な取り組みが必要」と話した。

福島県や福井県など、日本の自治体からは婚活イベントなど「結婚支援」の報告が相次いだ。香川県はビッグデータを活用し、見合い相手を紹介する事業について説明した。

一方、韓国・京畿道のカン・ギョンア女性家族局主務官は「出会いの場を提供したが、どれほどの効果があるのかわからない」と発言。今年から政策の方向性を転換し、雇用創出や住宅事情の改善など、若年層が結婚しやすい環境作りを少子化対策の柱に据えたという。

奈良県天理市は少子化の要因を20、30代の人口流出だと分析。奈良労働局などと協力し、子育て世代が働きやすい環境整備を進めていると説明した。並河健市長は「魅力を感じる場所に住み続け、子育てしてもらえるよう働き方の改革も提案していきたい」と語った。

分科会の報告から

空き家の活用法

奈良県橿原市の伝統的な町並みが保存されている今井町地区で7月、「まちづくり分科会」が開かれた。三重県や和歌山県など国内の12自治体が参加した。

江戸時代の建造物が多い同地区では、空き家をどのように活用するか模索が続いていた。調査では行政と住民団体らが協力し、学童クラブや宿泊施設として利用する事例を視察。資金確保のほか、行政と住民の関係づくりなど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

参加者からは地域と行政を結ぶ人材の配置や、まちづくりに関わる住民の意識改革の重要性などが課題として挙げられた。

農業で交流拡大

静岡県で10月、「東アジア『食と農』地域フォーラム」を開催した。日中韓の11地方政府代表などが参加し、「食農連携と健康長寿」「都市と農村の交流」「農業の6次産業化」を議題にして討論会や事例発表が行われた。

中国浙江省の寧波市は、6次産業化の一環として、食品企業と農業者が一体となり、栽培や安全管理に取り組む事例を紹介。「農村住民の所得倍増」「観光農業の育成」などを目標として掲げた。

静岡県の担当者は「日本の地方自治体の政策と多くの共通点がある」とし、農業分野での交流拡大を提言した。

第７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共通課題　互いに成果共有

基調講演

東京大名誉教授
北岡 伸一氏

国際協力機構（JICA）理事長。国際大学長、国連政府代表部次席大使などを歴任。専門は日本政治外交史。著書に「外交的思考」など。

東アジアは「世界の成長センター」となっている。中東やアフリカのような混乱はなく、難民の直接的な影響がない点で欧州とも異なる。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や軍事力の膨張を適切に処理し、衝突がないように さえしていけば、さらに発展していくと考えられる。

東アジアの安定のため、自治体の役割は大きい。国家と比べて機動的に意思決定ができ、住民のニーズをじかに反映することも可能だ。実現できる自治体は中央省庁より感度が良いのだろうと思う。

日中や日韓など、国同士で何かを進めようとすると、世論のナショナリズムが障害になることがある。しかし、都市や地方の間ではあまりない。互いの顔を具体的に思い浮かべ、地に足がついた外交が可能な点でも、地方と地方、都市と都市との関係は大変重要だ。

（東アジアの）都市には様々な共通課題があり、同じように苦労している。今回の会合でも、少子化の問題が取り上げられている。

互いの成果を共有し、一方が損をする「ゼロサム」ではなく、「（双方が利益を得る）プラスサム」になることが重要だ。「共通の問題を解決する」という切り口をさらに進化し、東アジアの一層の発展につなげていきたい。

来年は中国で開催　奈良以外では初

会場では奈良県特産の柿が振る舞われた

平城遷都1300年を迎えた2010年、奈良県の呼びかけで始まった。地方に共通する課題を話し合い、交流を深めることで平和で安定した東アジアの発展を目指す。中国、韓国、ベトナム、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日本の７カ国・68地方政府が加盟している。次回は来年５月、初めて奈良を離れ、中国の四川省成都市で開催する。

◆会合に参加した地方政府（自治体）
○中国＝安徽省、成都市、西安市、宿州市、東営市
○インドネシア＝西ジャワ州、ジョグジャカルタ特別州
○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
○韓国＝京畿道、慶尚北道、忠清南道、公州市、瑞山市
○ベトナム＝フート省、トゥアティエンフエ省、フエ市
○日本＝山形県、福島県、新潟県、福井県、山梨県、長野県、静岡県、三重県、京都府、和歌山県、島根県、徳島県、香川県、奈良県、宮城県多賀城市、新潟市、奈良市、天理市、橿原市、御所市、斑鳩町、明日香村、広陵町、下市町

◆この特集は荒ちひろ、市野塊、山西厚が担当しました。